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에 주력

전주시, 장애인 50명으로 구성 '상반기 시내버스·교통약자 모니터단' 운영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직접평가를 통해 버스타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든다.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 접근성과 저상버스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 모니터단을 운영해 자동차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매일 7회 이상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 150명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50명으로 구성된 2017년 상반기 시내버스·교통약자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시민 모니터단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green21.or.kr)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약자 모니터단은 소속 장애인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교육을 거쳐 오는 6월까지 5개월 동안 직접 전주 시내버스에 탑승해 안전운행과 운행실태, 친절도, 차량관리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관찰 및 질의를 통한 운행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교통약자 모니터단의 경우는 소속 장애인단체를 통해 접수된 자 중 50명을 선정해 시민 모니터단과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를 직접 탑승해 저상버스 및 저상버스 승강장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단이 활동 중 제보한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미흡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위해 해당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반면 모니터단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친절기사의 사연을 추천·제보하면 향후 친절기사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고 월 7회 이상 활동자에 한해 매월 활동비 1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250명의 휠체어 탑승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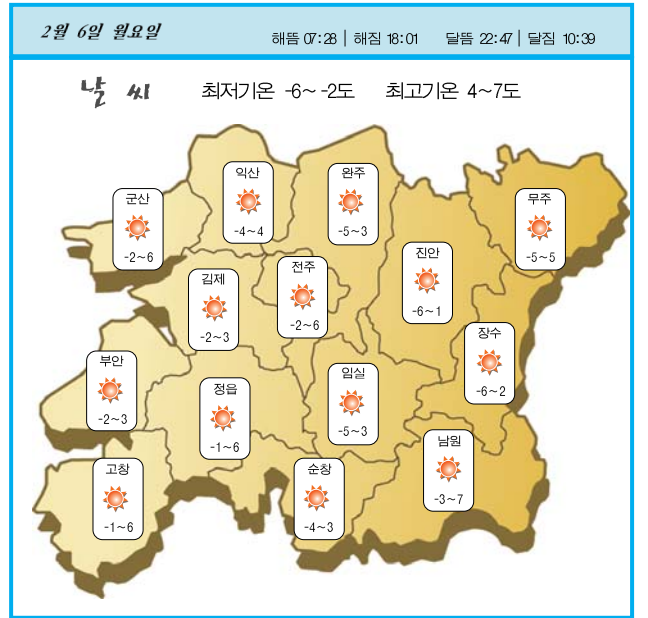
특히 장애인단체와 시민교통과 직원 등 30여명이 2인 1조가 돼 휠체어를

이용한 저상버스 리프트 탑승체험을 실시하는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시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281명의 상·하반기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2,745건을 개선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43명의 친절기사를 선정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일반시민은 물론 교통약자도 차별과 불편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공동체 활성화 위한 라디오 방송 송출

공동체라디오 '노송FM' 추진

전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과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라디오 방송이 송출된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형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공동체 직접 운영 방송프로그램인 공동체라디오 '노송FM(가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 예정이다.

'노송FM'은 언론에서 다루는 정보가 아닌 소소한 동네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공동체의 활동내용 및 우수공동체 사례 소개로 공동체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결혼이주여성들 지역사회 정착 학력취득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검정고시반·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개강

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학력취득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3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7년도 검정고시반 및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개강식을 가졌다.

올해 검정고시반에는 초졸반 15명과 중졸반 15명, 고졸반 20명 등 관내 결혼이주여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초졸반 6과목, 중졸반 6과목, 고졸반 8과목이며 과정별 10개월 이상 1일 4시간씩 연간 8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시는 학력 등 자격조건 미달로 인해 단순노동과 기피업종 취업 등을 반복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고졸반 성적우수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취업을 적극 앞선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회복력을 돕기 위해 초급 1단계·2단계, 중급 3단계·4단계,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다양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개강한 2017년도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에는 결혼이주여성 23명이 참여하게 된다.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3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7년도 검정고시반 및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개강식을 가졌다.

센터는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학생들이 고급 한국어 과정을 습득한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가한 검정고시반 짜오찌오 씨(중국)는 "선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

이 부러워 저도 열심히 노력해 올레는 꼭 대학에 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배움을 열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능

력을 향상시켜 한국생활 정착과 취업 등 한국생활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은 6일 2017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검정고시 종류에 따라서 초졸과 중졸·고졸로 나누어 원서 접수 장소가 다르므로 지원자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초졸의 경우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1층 행정자

료실과 전주 및 완주를 제외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같은 기간에 일반 응시자는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만 현장접수하며 장애 응시자는 초졸과 동일하게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 및 전주 완주를 제외한 각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정해은기자

전북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전라북도교육청이 2017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최초 응시자 2,566명 중 제1차 시험에서 346명을 선발하였고 제2차 시험에서 224명을 최

종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개인별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 6일 동안 중등교원윤리채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해은기자

